

2017. 6. 2. 금 학생회모임

말씀인도자: 김경동

참석자: 김경동, 홍다혜, 황여은, 홍기혁(여은목동님이 인도한 형제양), 김세진

포기할수 없는 한가지



언젠가 교구를 맡은 목사님이 내게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.

그 분이 교구의 여 직장인 순장들과 모임을 가졌는데, 이 찬양으로 시작했다고 한다.

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
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

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. “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,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은 어떤 것들입니까?”

“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.”

그 질문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한다. 그 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옮길 기회가 생겼는데,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포기했다는 것이다.

그 분이 이직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직장에서는 순장 사역이 가능한데, 직장을 옮기면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. 지금 직장에서는 순원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데 직장을 옮기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.

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,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, 그 분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것이다. 자기 좋자고 직장을 옮겨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.

이게 말이 되는가? 그 분이 담담하게 이런 간증을 하는데, 그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다. 그러면서 내게 보낸 메일에서 이렇게 고백했다. “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

었습니다.”

왜 그런가 하니, 자기는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옮길 때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교회로 옮겼는데,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직장을 옮길 수 없었다는 그 순장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초라해 지더라는 것이다. 그래서 막 울었다고 한다.

이런 고백을 하는 순장님도 귀하고, 그 고백 앞에 자책하며 눈물 흘리는 그 교역자도 귀하다. 이런 모습이 ‘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’ 모습이다. 우리가 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.

교회는 **그리스도의 사랑**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. 그래서 우리는 약자들을 감당하려고 더 많이 애를 써야 한다.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돌봄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. 또한 다른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.

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넉넉히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기둥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. 그럴 때 교회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**하나님의 공동체**가 될 것이다. 또한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.

<에클레시아 : 부르심을 받은 자들>
이찬수 / 규장

† 말씀

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

- 요한일서 10절,11절

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

- 마태복음 16장 18절

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

- 에스겔 11장 19절, 20절

† 기도

사랑하는 주님, 따뜻한 봄 햇살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엄을 봅니다.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. 완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며 사랑해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렇기에 그 완전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소서. 주님을 더 사랑함으

로 일을 하고, 사역을 하고, 관계를 돌보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.

† 적용과 결단

이 글을 읽으며 생각나신 기도제목이 있으신가요?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도록 결단하시길 원합니다.